

# “전주, 대한민국 도시농업 메카로”

### 우범기 전주시장, 농도 전북 위상 맞는 농업정책 구상 위해 농업 관련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이 농도(農道) 전북의 중심인 전주시를 대한민국 도시농업 일번지로 만들기 위한 구상에 돌입했다.

우범기 시장은 5일 농업정책 구상을 위해 삼천·평화동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분소) 확대 이전 예정 부지와 고령동 딸기 육묘장, 도도동 스마트 화훼농장, 농업 관련 민원 현장 등 농업관련 주요 현안 사업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우 시장은 전주농협 모악창고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와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이전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 중인 농업인들의 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증가하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수요에 맞춰 조속히 확대 이전을 추진해 농업인들의 농가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5일 농업정책 구상을 위해 삼천·평화동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분소) 확대이전 예정 부지와 고령동 딸기 육묘장, 도도동 스마트 화훼농장, 농업 관련 민원 현장 등 농업관련 주요 현안 사업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업기계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문제 등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현재 완산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확장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총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인동 국유지

에 분소확장이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 시장은 이어 농업 관련 유아동 민원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고부가 농산물인 딸기 생산을 위한 고령동 딸기 육묘장을 방문해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자동 온습도 관리 시스템을 갖춘 첨단육묘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전주시 도시농업 메카 조성 대상지인 도도동 항공대 인근의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정지와 스마트 화훼농장인 ‘로즈피아’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정취하고, 이 일대를 도시농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구체화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농도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는 앞으로 대한민국 도시농업의 메카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전주의 농민들이 행복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농민의 성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뉴질랜드와 일본 등 세계 11개국 공무원들이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글로벌 관광마케팅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 외국 공무원들, 전주 팸투어

### 11개국 14명 지방공무원, 관광홍보분야 벤치마킹

뉴질랜드와 일본 등 세계 11개국 공무원들이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글로벌 관광마케팅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K2H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방한한 11개국 외국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주 팸투어를 진행한다.

뉴질랜드와 일본,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서 온 14명의 지방공무원들은 한국에서 6개월간 체류 중인 가운데 도시브랜드와 글로벌 관광마케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전주 팸투어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방문 첫날인 4일 전주시청을 찾아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의 글로벌마케팅 우수사례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개관한 연화정도서관을 비

롯한 덕진공원 일대와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의 주요 관광지를 차례로 둘러보면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특히 세계적인 K-POP 인기와 더불어 K-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의 한류콘텐츠와 대한민국의 브랜드대상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된 전주의 관광마케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들에게 고국에 돌아가 전주를 안내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버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이번 팸투어가 전주의 관광산업과 더불어 국내외 잠재적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외국공무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에 매우 뜻깊었다”며 “전주시를 방문한 공무원들이 해당국에 돌아가 또 다른 전주 홍보대사가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완산구, 현장 중심 맞춤형 소통행정 추진

### 현장행정의 날 확대 시행·찾아가는 주민 소통창구 등 운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민선8기 출범에 맞춰 이달부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한 5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우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에 출장해 시민 안전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급경사지와 상습침수지역,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와 연계해 신속한 상황체계유지 및 초동대처할 수 있

도록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현장행정의 날’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일 1회 전 직원이 종합행정 담당동에 현장 출장해 가로정비와 청소, 도로, 교통 등 생활불편 전방을 처리하고, 공원 및 불법쓰레기 취약지 정비, 불법 광고물 제거, 잡초 제거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동 순찰·처리반을 운영해 월별로 권역별 취약지와 재해위험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단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정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와 구청의 신속한 업무 공유로 민원 다발 및 반복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주 1회 ‘찾아가는 주민소통창구’를 통해 동별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생단체와 지역주민, 팔목 협의체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생활불편 및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집단민원이나 복합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

장이 직접 찾아가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 등 합동으로 현장 실사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내부 공직자감 확립으로 소극적 관례적 업무행태를 바로잡아 시민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구정발전 시책 발목을 위해 실무주무관 대상 정책제안 공요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의 중심을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시민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현장에 맞는 응대형 있는 업무처리와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시스템을 마련해 대민 행정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완산구,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총력

### 로드맵 2단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완산구는 올해 초 수립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로드맵에 따라 1단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사업에 이어 현재 2단계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조경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방식을 활용한 제도다. 주민들이 동네를 산책하며 골목에 널브러진 전단을 줍거나 담배꽂이를

뒤엎은 벽보를 떼어내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올해 총 예산규모인 9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수거보상제에는 현재 1100여 명이 참여해 약 6500만 원의 보상을 받아 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

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1장당 1000원 △복합형 벽보는 1장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명함형 광고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A4용지 이상의 벽면 부착을 포함한 벽보·전단지만 수거 대상이다. 실질적인 광고물 수거를 유도할 목적으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전단지는 100장당 2000원으로 인상된다.

구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전단지 625만 건 △벽보 41만5000건 △현수막 1만5000건 등 총 668만 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

다. 연도별 수거실적은 2019년 690만 건, 2020년 780만 건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번 2단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로드맵에 따라 △3단계 주민 없는 간판 정비사업 △4단계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수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비가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로 예산조기 소진에 따른 사업의 단기성에 우려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형 주거급여로 주거복지 실현

### 전주시, 주택바우처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전주시는 저소득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2020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주택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기초주거 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60% 이하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금은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9만 원 △3인 가구 11만 원 △4인 가구 12만 원

△5인 가구 13만 원 △6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바우처 희망지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과 주거복지정책팀(063-281-2198)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 “수평적 조직문화 위해 불필요한 의전 없앨 것”

###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이 취임 후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의전 문화를 없애겠다고 천명했다. 강 청장은 5일 전북경찰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개선하는 등 솔선수범하겠다”며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계장급 직원이 나와 대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계급사회이고 계층적 구조라서 좀 더 경직된 문화가 있는 것 같다”며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발전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건과 지난 지방선거 사법 수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겠다”며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

## 전주시, 50+ 인생학교 심화과정 종강식

### 향후 평생학습 서포터즈 활동 전개

전주시의 ‘50+ 인생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후배들의 은퇴 후 준비를 돕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4일 ‘뭔가 할 수 있다’ 50+ 인생학교 심화과정 평생학습 서포터즈 양성과정의 종강식을 가졌다.

50+ 인생학교는 시가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를 고민하는 50세 이상 세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심화과정은 지난해까지 50+인생학교를 수료한 1~7기 졸업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강식은 △활동 영상상영 △50+ 김사는 인생학교 교장 축하인사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 격려인사 △소소간나누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화과정 수강생들은 앞으로 평생학습 서포터즈로서 SNS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50+인생학교와 50+어른학교 서포터즈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 수료생(50대)은 “인생 후반기의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던 중 평생학습 서포터즈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심화과정에서 배운 부분들을 활용에 평생학습의 든든한 지지자로 활동하고 싶다”고 종강 소감을 밝혔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 과장은 “50플러스 인생학교를 졸업하고 심화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평생학습의 서포터즈로 활동해 주신다면 여간 든든한 게 아니다”라며 “연

과와 경력, 능력을 두루 갖춘 50플러스 세대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